

올 여름 극장가 날씨만큼 '후끈'

군함도·박열·택시운전사

흥행 기대작 잇따라 출격

리얼·장산범·청년경찰 등

액션·공포 장르 다채

트랜스포머·스파이더맨

할리우드 대작 도전장



▲스파이더맨: 홈 커밍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이른 폭염과 함께 여름 극장가도 벌써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 대작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들도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여름 시장은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7~8월 두 달간 5618만명이 극장을 찾았다. 연간 관객 2억1천700만명 가운데 4분의 1이 이 시기에 몰린 것이다.

특히 배급사마다 가장 흥행에 성공할 만한 대표작을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여름 시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지나해에는 '부산행'(1157만명)을 필두로 '인천상륙작전'(705만명), '덕혜옹주'(560만명), '타닐'(712만명) 등 한국영화 4편이 일주일 단위로 개봉해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흥행을 기록했다.

올여름 배급사별 라인업도 만만치 않다. CJ엔터테인먼트는 이달 28일 '리얼'을 선보이는 데 이어 7월 하순에는 '군함도'를 출격시킨다.

순제작비 115억원이 투입된 '리얼'(이사랑 감독)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는 등 제작에 난항을 겪었지만, 김수현의 스크린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특히 파격적인 노출신 등으로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리얼'은 같은 날 개봉하는 이준익 감독의 '박열'(배급 메가박스 플러스엔)과 맞붙는다. '박열'은 간토(관동) 대학살이 벌어졌던 1923년 당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법정 투쟁에 나선던 조선의 아나키스트 박열의 실화를 그린 작품. '왕의 남자', '사도', '동주' 등을 연출한 '시대극의 장인'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다.

CJ의 야심작 '군함도'는 순제작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최소 700만명 이상 들어가 손익분기점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CJ는 '군함도' 흥행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개봉일은 7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로 잡고 있다.

배급사 쇼박스도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로 올여름 시장을 공략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특파원을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운전했던 실제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1980년대 시대상을 재현하느라 총 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됐다. 8월 개봉에 앞서 이 영화에서 독일 언론인 고위르겐 힌츠페터 역을 맡은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사 뉴(NEW)는 이달 29일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이어 8월 중순에는 '장산범'을 선보인다.

넷플릭스 영화 '옥자'는 CJ·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가 개봉을 거부함에 따라 전국의 소극장에서만 개봉한다. 그러나 19일 오전 현재 예매 점유율 12.0%, 예매관객 수 9274명으로 예매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기세가 만만치 않다.

'장산범'은 스릴러 '숨바꼭질'(2013)로 560만명을 동원한 허정 감독의 신작이다. 목소리를 통해 내 사람을 흘린다는 장산범을 둘러싸고 한 가족에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장화, 홍련'의 엄정아가 주연을 맡았다. 올여름 극장가를 찾는 유일한 공포·스릴러물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8월 중순 '청년경찰'로 특새시장을 공략한다. 박서준·강하늘 주연의 이 영화는 두 경찰대생이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정춘수 사역물. 다른 대작들에 비해 무게감은 밀리는 편이지만, 박서준이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인기를 얻고 있어 흥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영화들이 강세를 보여온 여름 시장에 할리우드 대작들도 출몰이 도전장을 내민다.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가 21일 개봉하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스파이더맨: 홈 커밍'이 극장가를 찾는다. 스파이더맨을 맡은 배우 톰 홀랜드와 감독 존 왓츠는 개봉에 앞서 내한해 한국팬을 만났다.



리얼



박열



군함도

하지원, MBC '병원선' 주연

“의사역은 처음”... 8월 방영

배우 하지원(39)이 MBC 새 수목극 '병원선'의 주연을 맡았다. '병원선' 제작진은 16일 "하지원이 실력과 외과 의사 송은재를 연기할 예정"이라며 "경쟁에는 익숙하지만 인간적 교류에는 소질이 없는 캐릭터다. 또 하지원이 의사를 연기하는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에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섬마을 사람들을 소통하며 '진짜 의사'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담는다.

현재 방영 중인 '군주-기묘의 주인' 후속 '죽어야 사는 남자' 종영 후 8월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순하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아들 폭력 논란’ 사과

배우 윤순하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윤순하는 18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아이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다친 아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도 사죄드립니다”며 “초기대처에 있어 변명으로 일관돼버린 제 모습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미흡한 대처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SBS8뉴스”는 앞서 16일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유명 연예인의 아들 등이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사건과 관련된 윤



순하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보도는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며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에 나간 점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중의 비판이 확산하고 출연 중인 KBS 2TV 드라마 ‘최고의 한 방’ 하차 주장까지 제기되자 결국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동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00 1대 100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반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화첩기행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상 (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특소는 인터넷 소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목?목! 키즈스쿨 55 수빈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역에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반침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트윈스터즈)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의 희귀 풍습 - 불의 마을 홍원춘>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창시특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2부 약천후를 이겨라! 캐나다 가다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인삼 삼겹살구이와 파채 샐러드>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독한 맛에 쓰이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시계마을 타키톡!	21:50 EBS 디큐프라이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입니까?>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황금알을 낳는 동물 농장! 왕 vs 타조>	16:30 두다다공	23:35 메디컬 다크 - 7요일 <척추관 협착증 의>
07:45 출동! 슈퍼월드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덩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크-7요일(재)	17:15 엄마 깨무리	24:30 한국영화특선 <갯마을>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장수의 비밀(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레이디비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30 삼삼삼동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 (음 5월 26일 戊寅)

<p>子</p> <p>48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0년생 정략한 분석과 신속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72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반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17, 75</p>	<p>午</p> <p>42년생 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54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66년생 명칭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라. 78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90년생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졌다. 행운의 숫자 : 88, 81</p>
<p>丑</p> <p>49년생 마음을 비우고 일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61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클 것이다. 73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5년생 기민하게 강구한다면 많은 것을 얻는 길사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0</p>	<p>未</p> <p>43년생 근본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가 없이 얻는 순이익이다. 67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79년생 엉뚱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91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나, 행운의 숫자 : 41, 96</p>
<p>寅</p> <p>50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62년생 오랜 세월 동안 성가셔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성국이다. 74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86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수가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37, 15</p>	<p>申</p> <p>44년생 기존의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스라피이 보인다. 56년생 재수불공 한다던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68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약해 가려운다. 행운의 숫자 : 70, 01</p>
<p>卯</p> <p>51년생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판세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63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75년생 오류가 보이니 신속히 바로 잡자. 87년생 튼튼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다. 행운의 숫자 : 07, 64</p>	<p>酉</p> <p>45년생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진행 방향에 혼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57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으니라. 69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81년생 활동력에 따라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06, 40</p>
<p>辰</p> <p>52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64년생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저를 할 수 있다. 76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88년생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56</p>	<p>戌</p> <p>46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 전문가와 함께하자. 58년생 가닥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70년생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었다. 82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7, 85</p>
<p>巳</p> <p>53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65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77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결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89년생 득실의 차가 작으니 큰 의미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30, 77</p>	<p>亥</p> <p>47년생 재물이 나타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59년생 부드러운 어감의 표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71년생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83년생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고 관련된 것이나, 행운의 숫자 : 83, 2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실” ☎010-9790-8237